

전후 일본의 왜곡 속의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 소설 『해변의 카프카』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의 정독에 대해 —

친강(秦剛)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에 대해 일찍이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의 특질은, 사회에 대해 혹은 개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환경에 대해서조차, 일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적인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은 저항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배경음악(BMG)이라도 듣듯이 들으며 자신의 내적인 몽상의 세계를 엮어내는 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방점원문)

(村上春樹の文学の特質は、社会に対して、あるいは個人生活のもっとも身近な環境に対してすらも、いっさい能動的な姿勢をとらぬという覚悟からなりたっています。その上で、風俗的な環境からの影響は抵抗せず受け身で受けいれ、それもバック・グラウンドミュージックを聴きとるようにしてそうしながら、自分の内的な夢想の世界を破綻なくつむぎだす、それがかれの方法です。)

(「전후문학에서 오늘날의 곤경에 이르기까지(戦後文学から今日の窮境まで)」, 『세계(世界)』, 1986.3)

또한 오에 겐자부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과 전후 일본문학과의 단절과 대조에 대해 ‘전후 문학자들이 능동적인 자세에 서서 해낸 각각의 일에서 거의 30년의 간격을 두고 그와 전혀 대조적으로 수동적인 자세에 선 작가가 오늘날의 문학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戦後文学者たちの能動的な姿勢に立つそれぞれの仕事から、ほぼ三十年をへだてて、それとまったく対照的に

受動的な姿勢に立つ作家が、今日の文学状況を端的に表現しているのです’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에 겐자부호가 이처럼 비평한 1986년에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의 최초 외국어 번역 『1973년의 핀볼(1973年のピンボール)』의 대만판이 간행되었고 그 후 십수년 동안 약 40개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현상>이라고 불리는 붐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관한 억측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무라카미 하루키가 현대 일본문학의 <대표>로서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는 현재에도 오에 겐자부로의 지적은 여전히 그의 문학의 본질을 간파한 정확한 인식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속적인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은 저항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관된 자세는 장편소설 『해변의 카프카(海辺のカフカ)』에 지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풍속적인 환경>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바로 이 작품이 크게 히트한 것입니다.

2002년 일본의 <풍속적인 환경>을 <치유(癒し)>라는 유행어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99년 처음으로 신어(新語)·유행어 대상 톱텐으로 선정된 후 4, 5년에 걸쳐 시대의 풍속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전체가 <치유>를 갈구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정치문제로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전후 일본의 기원이 된 <역사문제>가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에 깊은 상처를 내게 된 것이 그 원인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로 들어서는 세기의 교체기에 <역사문제>가 초래한 심리적 음영을 치유하고 그 정신적인 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욕구가 일본인의 집단적 무의식이 되었습니다. 『해변의 카프카』는 실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치유>를 갈구하는 국민적 테마에 부응한 소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는’ 오이디푸스 신화적인 주제를 취한 이 소설은, 왜 <치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해변의 카프카』와 오이디푸스 신화의 최대 차이점은 카프카 소년이 아버지에 의해 저주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진해서 상상의 세계에서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¹⁾ 자진해서 상상의 세계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

하는’(상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이 작품을 그린 작가가 작중인물과 동격이지만)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출생과 혈통을 말소시키고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근본적인 역사성을 리셋(reset)하는, 충동의 발현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폭력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절실한 바람을 이야기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주인공에게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게 하지 않고 실현시킨 것이 『해변의 카프카』입니다. 스스로의 출생에서 유래하는 정신적 외상을 공백으로 되돌림으로써 없었던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의사적인 공간을 무라카미 하루키는 제공한 것입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더군다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살인과 근친상간의 터부를 깨는 것을 정당한 행위로 그리기 위해 작가는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이야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폭력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력의 행사를 상상만 하는 것은 전혀 나쁠 게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에 관해 소설에서는 많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곳은 아주아주 폭력적인 세계입니다. 아무도 폭력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ここはととてもとても暴力的な世界です。誰もが暴力から逃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ことはどうかお忘れ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제10장)라는 고양이 미미의 이야기. 또 ‘당신이 살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런 것은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아.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당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거야(君が人殺しが好きとか嫌いとか、そんなことは誰も斟酌しちやくれない。それはやら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なんだ。さもないと逆に君が殺されることになる)’, ‘그것이

1) ‘나는 이미 아버지를 죽였다. 이미 어머니를 범했다. 그리고 이렇게 누나 속에 들어와 있다. 만일 거기에 저주가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것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한시라도 빨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버리고 싶다. 그리고 그 후에는 누군가의 생각 속에 휘말린 누군가로서 아닌 내 자신으로 살고 싶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僕はすでに父を殺した。すでに母を犯した。そしてこうして姉の中に入っている。もしそこに呪があるのなら、それを進んで引きうけようと思う。それを早く終えてしまいたいと思う。一刻も早くその重荷を背中からおろしてしまいたい。そしてそのあとは誰かの思惑の中に巻きこまれた誰かとしてではなく、僕自身として生きていきたい。それが僕の望んでいることだ)’- 『해변의 카프카』(제41장)

인간 역사의 뼈대이다(それが人間の歴史の骨子だ)'라는 조니 위커의 이야기. 혹은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戦いを終わらせるための戦いというようなものはどこにもないんだよ)', '싸움은 싸움 자체 속에서 성장해간다. 그것은 폭력에 의해 흘린 피를 빨아먹고 폭력에 의해 상처 입은 살을 물어뜯고 성장하는 거야. 싸움이란 일종의 완전생물이자(戦いは、戦い自体の中で成長していく。それは暴力によって流された血をすすり、暴力によって傷ついた肉をかじって育っていくんだ。戦いというのは一種の完全生物なんだ)'(제41장)라고 말하는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의 이야기 등(고모리 요이치는 작품에 보이는 근대국민국가가 발동하는 전쟁과 개인적인 폭력행위와의 '무매개의 결합'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다무라 카프카 소년이 꿈의 세계에서 터부를 범하는 행위와 그의 분신인 나카타가 조니 위커를 살인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왜 <세계>는 <폭력적>인 것인가?', '전쟁에서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인간 역사의 뼈대>로 인식해도 좋은가?' '전쟁과 폭력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등, 『해변의 카프카』에는 이 문제들에 대한 물음이 일체 결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뼈대'라 여겨지는 전쟁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대상화하고 폭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소설은 전쟁의 논리를 주인공이 내면화하고 상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터부한 15세 소년>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변의 카프카』가 의거한 또 한 가지의 전제, 즉 폭력 행사를 상상만하는 것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그에 대해서는 작품에서 인용할 필요도 없이 『해변의 카프카』의 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작가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 소년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은 '이해가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의 환상 속에서 여러 번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한 한 18세의 독자에게 무라카미 하루키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냅니다.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마음 속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현실 생활에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같은 것이 살고 있고,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트리거 가드(안전장치)를 겁니다. —중략— 때문에 당신 안에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이 있는 한, 그 존재를 당신이 느끼고 있는 한, 당신은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안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僕は心理学者じゃないのでうまく説明できないけど、人はみんな心の中でいっぱい人を殺しています。でも想像の中で暴力をふるい、悪をおこなっているからこそ、現実の生活ではそれをしなくて済む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すべての人の心のなかには「カラスと呼ばれる少年」みたいなものが住んでいて、それが目覚めるときの人々の行動にトリガーガード(安全措置)をかけます。—中略—だからあなたの中に「カラスと呼ばれる少年」がいるかぎり、その存在をあなたが感じているかぎり、あなたは護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安心していいと思いますよ)

(『무라카미 하루키 편집장 소년카프카(村上春樹編集長 少年カフカ)』, 신초샤(新潮社), 2003. 6)

이 답변에서는 ‘상상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마음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이라는 ‘트리거 가드(안전장치)’라는 규제만 있다면 ‘안심해도 좋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스스로의 창작을 자기변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사고의 논리적 기만성을 꿰뚫어 보기는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는 남자가 유년기에 안고 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자아의 형성과 더불어 의식의 억압을 받아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쫓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누구누가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다고는 해도 그것은 건전한 인간에게는 의식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상>이라는 의식의 움직임은 행동과 깊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은 모두 마음 속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 모든 역사와 문화는 인간의 <상상>에 의한 산물이며 <상상>이야말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현실과 행동에 결부된 회로가 영구 차단된 인간의 <상상>은 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상상력을 다루는 문학자로서 ‘마음 속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상상 세계의 대량 무차별 살인을 쉽게 용인하는 자세와 그와 같은 문학적인 표현을 문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책무를 문예평론가인 고모리 요이치가 저서 『무라카미 하루키론—『해변의 카프카』를 정독한다(村上春樹論—『海辺のカフカ』を精読する)』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해변의 카프카』가 불러일으킨 무라카미 붐이 정점에 달한 2006년에 이 책이 간행된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론—『해변의 카프카』를 정독한다』는 고모리 요이치가 2006년 1년 동안 연달아 간행한 네 권의 저서 중 한권으로, 그 밖에 현실에 밀착하여 정치적인 언어조작을 밝힌 『심뇌 컨트롤 사회(心脳コントロール社会)』(지쿠마 신서(ちくま新書) 2006.7), 인종차별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레이시즘(レイシズム)』(이와나미 신서(岩波新書) 2006.9), 일본 근대문학에서 평화헌법의 의미를 재확인한 『말의 힘 평화의 힘(ことばの力 平和の力)』(가모가와 출판(かもがわ出版) 2006.10)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론』에서 고모리 요이치는 『해변의 카프카』에 대한 치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를 말소시키는’ 이야기 구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조를 국가 레벨의 전쟁과 개인 레벨의 폭력행위의 논리적 혼합, 남성 측의 여성혐오(misogyny), 말과 기억을 처형하는 이야기의 책략 등이 기저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인용된 오이디푸스 신화와 『아라비안 나이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카프카의 『유형지에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갱부(坑夫)』와 같은 텍스트가 『해변의 카프카』의 어떤 문맥과 관련이 있는지를 해독하면서 주인공의 정신구조와 이야기 설정에 대해 상세하고 훌륭하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서의 후반부에서는 쇼와 천황(昭和天皇)의 전쟁 책임, 교과서 문제, 중군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지으면서 작품과 전후 일본사회의 관계를 논증하여 전후 일본의 역사문제가 발생하는 근원과 변천의 축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론』은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문학 언설의 이면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말의 폭력성을 파헤쳐서 그것을 역사와 현실의 비판으로 이어가는, 문학작품을 정독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론』을 읽고 깊이 공명하였고 그리고 실로 많은 자극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라카미의 작품을 그에 대한 상대화와 비판의식이 희박한 채 받아들이는, 중국의 편향된 수용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무라카미 하루키론』을 번역하였고 곧 중국에서 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와 일본근대문학, 현대 일본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분들에게 고모리 요이치 『무라카미 하루키론』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론』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무라카미 수용의 맹점을 지적하는 논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라카미 문학이 종종 비(非)일본적·탈(脫)일본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그 작품의 무국적적인 요소만이 강조되어 왔지만, 이 소설이 일본사회의 현실과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중요시 된 적은 없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론』은 그런 식으로 작품을 읽는 위험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변의 카프카』에서는 중국과의 전쟁과 미군의 일본점령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에 채용되어 <신사(神社)> (<야스쿠니(靖国)>)를 연상시키는 기호가 이야기의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변의 카프카』의 중국어판 서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중국 독자에게 ‘다무라 카프카 군의 많은 부분은 나인 동시에 또한 당신이기도 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안이하게 작품에 자기동일화하기 이전에 그 특이성을 알아채고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무라카미 신화의 일부로, 나이 들지 않는 그의 도회적인 청년 <소년(boy)>으로서의 인상이 널리 선전되어 독자 사이에 정착되어 있습니다.²⁾ 그 작품에 표현된 모던한 라이프 스타일과 도회적 요소에 매료된 나머지 1949년생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전후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일원이라는 사실

2) 중국어판 『해변의 카프카』(상해역문출판사, 2003.4)의 번역자 林少華가 서문 중에서는 <영원한 소년>으로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만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밖에 林少華 「“영원한 소년” 무라카미 하루키와의 대화」(『남방일보』, 2003.6), 「林少華: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년이다」(『남방인물주간』, 2005.7.28) 등이 있다.

의 의미가 완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즉 단카이 세대(団塊世代)에 대해서는 고모리 요이치가 저서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로 거론하고 있는 바입니다.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의 제1차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는 800만 명에 이르며 일본의 연령별 인구 중 두드러지는 집단입니다. 단카이 세대는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전후에 태어난 첫 세대로서 전후 일본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현대 일본의 사회체제와 경제 모델의 형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전후 일본의 <풍속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청소년기에 TV 방송이 시작되었고(1953년),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만화 붐(1959년)을 지탱하는 독자군이 되었고, 청년기에 들어서서 비틀즈와 장발 유행(1960년대)의 주역이 된 단카이 세대인데, 그 중 약 90퍼센트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집단 취직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노동력이 되었고, 약 10퍼센트의 엘리트 층은 대학에 진학하여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친 대학 분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공투(全共闘) 운동 속에서 그들은 전전(戰前), 전중(戰中) 세대의 침략전쟁에 관한 책임, 그리고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리 요이치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운동을 통해 '상징적인 아버지 살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생운동이 끝난 후에 전공투 세대(단카이 세대)의 많은 이들이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이 큰 좌절감과 환멸감을 안고 이후 정치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가 탄생한 데에는 그와 같은 시대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전전(戰前)세대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의 전쟁체험과 전쟁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역사인식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현재에 이르게 된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일본사회가 눈에 띄게 우익화하는 풍조에 대해, 전후 일본의 중견세력이었던 단카이 세대에게는 큰 책임이 있으며, 단카이 세대의 전후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2007년부터 단카이 세대는 만 60세가 되며 앞으로 3년 동안 대량 퇴직하여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는 일본사회 각 방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학표현자로서 어떻게 전후 제1세대인 일본인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완수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본과 세계를 향해 일본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가, 그것을 강력히 묻는 것이 고모리 요이치에 의한 무라카미 하루키 비판의 출발점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국적, 도시문학, 포스트모던 등의 꼬리표를 떼어 내고 무라카미 문학을 다시 한 번 전후 일본의 개별적인 역사성 속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무라카미 현상>이 지닌 의미를 사색하는 본래의 길일 것입니다.